

홈 > 뉴스 > 기획 > 제주 근대 유산의 길을 걷다

"50년 전 제주 관광 인프라 열악...관광 발전 위해 발로 뛰어"

유하영 제주관광호텔 초대 지배인

데스크승인 2013.06.04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1963년 제주관광호텔 초대 지배인을 맡았던 유하영 전 제주도관광협회 회장(81)은 "호텔은 양복을 입은 느낌인데 제주사회는 갈옷을 입은 인상이었다"며 빈곤했던 시절을 회고했다.

교통부가 관할했던 국영 반도호텔에서 10년 동안 근무했던 그는 한국관광공사 호텔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사 총재가 '제주로 가서 지배인을 맡아 달라'고 부탁해 제주와 인연을 맺게 됐다.

당시 제주의 관광 인프라는 말 그대로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는 "30인승 프로펠러 여객기로 제주공항에 도착해 보니 200평도 안 되는 임시 가건물을 청사로 쓰고 있었다. 시내는 비포장도로에다 미군의 스리쿼터(중형트럭)를 개조한 6인승 시발택시 5대

가 있었는데 손님이 없어 세워두는 시간이 많았다”고 얘기했다.

어는 겨울날에는 달랑 1명이 호텔에 투숙했는데 관광 이미지를 위해 기름보일러를 때야 했다.

호텔은 세운 김평진 이사장은 그 공로로 우리 정부로부터 상을 받았지만, 정작 일본에선 세무 사찰을 받은 비화를 들려줬다.

그는 “일본 측에선 본국의 외화를 유출한 행위여서 세무조사를 했고, 김 이사장은 사찰을 받고난 후 한동안 한국에 입국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주관광 발전에 기여한 첫 번째 인물로 김 이사장을 꼽았다.

대통령에 대한 일화도 들려줬다. “지배인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10번을 모셨습니다. 육영수 여사는 호텔 말단 직원에게도 자상하게 대해주고 격려해 주면서 ‘국모(國母)’라고 불렀던 이유를 알게 됐죠.”

제주관광협회와 인연을 맺은 그는 1968년 자비를 써가며 6개월간의 연구와 조사 끝에 제주관광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제주관광 개발 건의서’를 작성했다.

그는 호텔에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투숙하면 빠짐없이 이 건의서를 건네며 검토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가 제출한 건의서는 1970년대 제주관광 개발에 대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됐다. 10개의 항목 중에는 제트여객기 착륙이 가능한 공항 확장, 관광단지 조성, 관광도로 개설 등을 담았다.

동양의 라스베가스 조성에 필요성을 느낀 그는 구자춘 도지사 재임 당시 서귀포관광호텔 3층에 도내에서 처음으로 카지노를 허가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카지노는 국내 최초로 카지노를 개장한 인천올림푸스호텔과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50년 전 호텔 지배인으로 올 당시 프로펠러 여객기가 제주~서울을 하루 1, 2회 오가고, 시발택시 5대와 관광버스는 2대인 것이 제주 관광의 전부였다"며 "제2의 고향인 제주에 살면서 제주관광을 위해 발로 뛴 것에 보람을 느끼고 남은 인생도 관광에 봉사하고 싶다"고 말을 맺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